

## - 일본의 농촌지역 및 농가를 지키기 위한 방안 - 고령농도 즐겁게 영농을 할 수 있는 「즐거운 농법」

테라오까(寺岡)

나라(奈良)현 시모이치쵸(下市町) 토치바라(栃原)지구

일본은 우리의 농촌보다 먼저 고령농이 먼저 진행되었다. 이에 고령농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영농을 통하여 고령농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영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즐거운 농법”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봄이 되면 벚꽃으로 유명한 나라(奈良)현 요시노(吉野)산의 주변에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감의 산지이다. 가을이 되면 산전체가 감색으로 물들 정도로 산전체가 장관을 이루지만, 대부분이 경사지로 이루어져 고령농들이 작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요시노(吉野)군 시모이치쵸(下市町)토치바라(栃原)지구의 지역민들과 함께 「고령자의 영농을 지원하는 “즐거운 농법”의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고령자가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감을 중심으로 매실 등도 생산하는 토치바라(栃原)지구의 농가호수는 약 80호이고, 인구는 300명 정도로 협동으로 직매소 「토치바라미치시루베(栃原道)しるべ」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농의욕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의 감나무 밭은 최대경사 20도에 달하는 급경사면이 옛날부터 80%에 달하고, 후계자도 적어 2009년에는 감선과장을 폐쇄하는 등 고령화에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다.

현재 군시부로 나가 일을 하고 있는 손자·손녀세대 중에는 「정년귀농」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을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세대의 신체가 농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손자세대가 정년귀농으로 마을로 돌아온다고 하여도 역시 고령농이 된다. 즉 「지금도」 「지금부터」도 토치바라를 이끌고 있는 것은 고령농이며, 고령농

이 조금이라고 길게 농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그와 같은 배경에서 고령농의 체력이나 주의력의 실정을 감안한 농법이나 그 때에 필요한 기계를 생각하자는 것이고,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지원을 받아 각각의 전문분야의 연구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토치바라의 주민들이다.

### 『즐거운 재배』의 개발

#### ▶ 감잎을 상품화

첫 번째는 「즐거운 재배법 개발」이다. 젊었을 때는 수확한 감의 20kg 컨테이너 한 개를 3단으로 쌓아 한사람이 안을 정도의 힘이 있었지만, 나이를 먹고 한 개도 들지 못하게 되었다. 급경사인 밭에서 각종 작업을 하는 것이 매년 고통으로 다가온다. 때문에 전혀 새로운 작물에 처음부

즐거운 농법



높이를 낮게 하여

높이를 낮게 하여 작업이 쉬운 감잎재배용 밭



감나무가 낮아질다.



감나무잎 줄아 매우 가벼워 작업이 쉽다.



어깨와 목이 피곤하다.

농작업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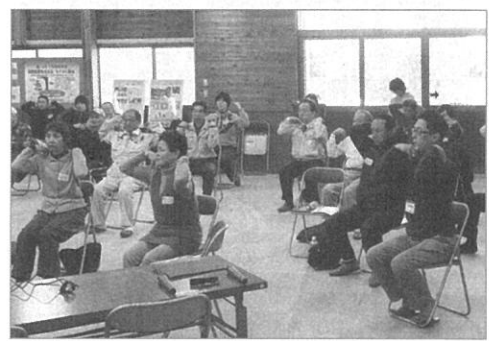
사다리로 수확할 때 신체의 어느 부위가 피곤한가 점검

더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때문에 주산물인 감을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다. 그 파생물인 감잎, 적과로 나온 미숙과 등이 상품화된다면 또 다른 미래가 보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감잎은 과실에 비해 가볍고 고령농이라도 취급하기 쉽다. 농약살포도 과실을 만드는 것보다 노동력 덜할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금액을 벌 수 있다면 이것보다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간단하고 쉽게”의 실현을 위한 실험을 “즐거운 농법”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다.

▶ 감나무를 낮게

이를 위해 즐거운 재배그룹은 감잎 재배에 적합한 낮은 감나무단지를 만들기 위한 어드바이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행히 과실재배를 하지 않는 밭을 이렇게 감잎용 밭으로 전환하는 시험에 몇몇의 농가가 참가하여 생산한 감잎을 지역의 스시업자가 구입하여 주었다.

“농작업 점검”과 체조로 건강하게



작업으로 피곤한부분을 풀기위한체조, 이것은 어깨와목의 스트레칭

그러나 아무리 즐거운 재배가 증가한다고 해도 농업인의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없다. 때문에 두 번째의 과제로서 농작업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는 “농작업 점검”의 실시이다. 토치바라의 주민들을 모아 체력현황이나 특징을 명확히 하는 신체점검을 실시하였다.

각종 조사결과, 예를 들어 수확 시 감 바구니를 신체의 한쪽만 사용하여 감의 무게가 신체의

한 부분으로 집중하여 어깨나 목이 무리가 오고 있다는 것, 수확작업에 허리를 사용하는 시간이 매우 많아 밸런스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역민 중에는 의외로 체력이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대처방안을 포함한 간단한 체조를 구상하여 회의시간에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회의 시 점검을 건강에 좋아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

### 고령농도 사용하는 “전기운반차”

▶ 급경사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



전동 운반차

세 번째는 고령농도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운반차의 개발이다. 시험용차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개량을 반복하였다. 지구의 집회소에 가져간 최초의 시험용차는 “급경사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한마디에 폐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의견을 받아 개량을 반복하여 지금은 하중 200kg도 동작가능하며 평지는 물론 경사 20도를 넘는 감나무 밭에서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커다란 전지로서도 이용할 있다.

전동운반차의 또 다른 점은 운반차 자체가 하

나의 거대한 전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트 등을 사용하여 물을 끓여 녹차나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발신기 등을 장착하면 전지용량이 계속되는 한 운반차의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만일의 사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동공구, 휴대전화의 충전장치, 컴퓨터를 밭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의 나타날 것이다. 전동운반차는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즐거운 노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집락의 현황을 파악하는 「회의 점검」

▶ 10년 후도 감 농사를 계속하고 싶다.



회의 점검

지도를 사용하여 농지를 점검하고 마을의 10년 후를 예상

물론 이러한 과제를 생각하기 위한 토대로서 농가자신이 집락의 농업이나 후계자의 현황을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의점검”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집락점검이라는 방법이나 농지별 장래의 경작예상을 지도로 확인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 10년 후도 감 농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농가가 지구임원의 예상보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조사한 출향인에 대해서도 그 대부분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인근에

살고 있다고 하는 지구의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10년 후 감나무 밭의 경작예상

경작을 그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밭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농가	13농가 29.5%
경작을 그만둘까 계속할까 고민하고 있는 밭을 갖고 있는 농가	10농가 22.7%
지금 갖고 있는 밭을 모두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농가	21농가 47.7%

(현재 감나무 밭을 갖고 있는 농가는 44농가)

▶ 마을의 보물을 재발견

또한 마을의 자원점검에서는 오래된 작물이나 가정요리 등 같은 지구의 사람이라도 알 수 없었던 혹은 잊고 있었던 것들이 나타났으며, “회의 점검”은 매우 활성화 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토치바라의 지역민들과 함께 새로운 발견, 재발견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토치바라뿐만 아니라 고령영농인이 즐겁게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힌트나 방법이 나오는 것을 바라고 있다. ㉞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일본 현대농업 2013년 5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

## 49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끈기있게 맥을 이어온 49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원여러분의 끈임 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회원여러분처럼, 회보 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도·농녹색교류, 신영농기술, 세계농업동향, 회원 여러분의 각종 소식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일이나 농촌현장의 희노애락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회보에 많은 참여를...**  
**회원여러분! 시내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정성과 농심이 가득한 후원금을...**



- 회원의 목소리 : 매달 25일까지  
이메일 kafa794@chol.com, 팩스 02)792-6972  
서울 용산구 이촌로 223-13 (이촌동 301-87) (우)140-906
- 후원금 송금처 :  
농 협 : 1394-01-000536 제일은행 : 327-20-016036  
예 금 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